

창립 20주년 맞은 공항철도 지속 성장 미래 제시

공항철도(사장 이후삼)가 올해로 창립 20주년 맞는다.

2001년 3월 23일 회사가 문을 연 이래 2007년 인천국제공항역~김포공항역 구간 운행을 시작으로 14년간 공항철도 누적 이용객은 7억2천만명에 이른다. 이는 서울 시민 모두가 공항철도를 74회씩 이용한 수치와 맞먹는다. 누적 주행거리는 8천310만9천63km로 지구 둘레(4만6천250km)를 약 1천797바퀴, 지구에서 달까지(거리 38만3천km) 108회 왕복한 거리에 해당한다.

지난 2010년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전 구간을 개통하고 2018년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노선이 연장되면서, 현재 공항철도는 총 14개역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0월 25일에는 하루 최다 이용객 32만6천386명을 달성하는 등 2019년 한 해에만 신기록을 12차례 경신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1, 2터미널을 왕복 운행하는 공항철도는 연평균 28.2%에 달하는 수송 성장세를 유지하며 하루 수송 여객 26만명의 공항을 연결하는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개통 첫해와 비교해 수송객 규모는 19.7배 성장했고, 운임 수입도 13.9배 증가해 사업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자립 경영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해외입국객의 공항철도 이용이 제한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이 감소했다. 열차가 정상 운행하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33.3%가 줄었다.

공항철도는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운송 서비스 개선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차내 혼잡도를 낮추고, 하루 중 차량의 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첨두시간대 운행시격을 4분대로 단축하는 '차량증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출퇴근 시간에 이용객이 많이 몰려 안전의 위험이 있는 계양역과 검암역의 혼잡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승강장 확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철도 인프라 개선 사업에 과감한 투자로 공항철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1 이후삼 공항철도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공항철도 차량기지에서 차량 분야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 공항철도 직통열차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임산부의 날 대통령상,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SQC) 재인증, 제20회 대한민국상품대상,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획득, 무사고 6천485만km 달성, 정시운행률 99.9%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고객 만족과 절대 안전'을 핵심 가치로 둔 '경영전략 2025'를 기반으로 ▲ 자립 경영 달성 ▲ 안전사고 0건 ▲ 정시운행률 99.99% ▲ 서비스 평가 최고등급 획득 ▲ 운행 시간 30분대 단축 등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항철도 이후삼 사장은 "공항철도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안전 운영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전 직원이 함께 이룬 2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